

倭政下 定期刊行物 所在

國樂關係記事(8)

東洋音樂研究所 資料室

目 次

朝鮮文化問答室 勳鈴僧이란어떤겁니까(權相老) .....	
없어진風俗 줄무지(白花郎) .....	
朝鮮傳承娛樂의 分類(宋錫夏) .....	
高麗에 來往한 西域사람들(閔泳珪) .....	
流行歌의  걸어온길(楊 蕙) .....	

◎ 일 러 두 기

- 이 글을 倭政下에서 刊行된 定期刊行物(신문·잡지)에 수록된 國樂關係記事의 轉載 八回分이다.
- 이번 輯에서는 月刊誌「朝光」을 대상으로 했다.
- 轉載에 있어 본래의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朝光」, 서울: 京城朝光社, 1935-. (영인본, 서울 학연사).

動鈴僧이란어떤겁니까

(問) 봄이되면 집집마다 동영僧이 많이나려와 回心曲을 부르는데 그 由來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仔細히 가르쳐주십시오

元山金永七

權相老

釋尊이原來에 乞食을하였으니 「食時着衣持鉢入舍衛大城 乞食於其中」이란 말은 佛經中에서 種種보게되매 釋尊의弟子인僧侶 卽比丘를漢土에서乞士라고翻譯하였으니. 안으로는 法을비러서 慧命을이어가고 밖그로는밥을비러서 色身을기른다는 意味라고하였다. 그리하여 乞食으로써 가장清淨한生活을삼았으며 더욱이現代의우리들처럼 每日三時를먹는것이아니라 一日一食을하여서 齋食時라는卽巳時때에 한번먹고 다시먹지아니하는 規則的生活을簡單히 하였음으로 밥도그한時間에 먹으면그만이요 남기어두는法이없으므로 그것을分衛라고하였으니 곳비러운밥으로 衆僧과分食하여서 正法을衛護한다는뜻이라고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는 오죽乞食만하고 乞糧은아나하였으니 밥도냄겨두지않는 生活에 糧食을準備할必要도 없었고 또는 釋尊의居處하시든 祇桓精舍같은것은 王舍城에서멀지아니하였음으로 乞食하기가便利한것도 한理由이겠지마는 그 後로차차 僧侶가느러서 深山窮谷에 孤棲深隱하는者생기면서부터는 乞食하기가不便利하게됨으로부터 비로소糧食을빌게되었을것이다. 印度와支那에는 乞糧한明文이 생각나지아니하나 朝鮮佛敎史上에는 三國遺事에나타나는 良志使錫이 그것이니 新羅善德王때에 神僧良志가 錫杖에 布袋한個를 잡아매여두면錫杖이저혼자 檀越의집으로나라가서 혼드러소리내면 檀越들이알고는 그布袋에齋費곳糧食을너어주어서 자루가차면 錫杖이나라도드라왔음으로 그절일흠을 錫杖寺라고하였다하니 이것이 乞糧하든證迹이다. 그러나 高麗時代까지라도 僧侶二個人生活을 營爲하지아니하고 叢林規制에 依支한 團體的大衆生活 곳이새이寺刹에서말하는 圓融살림이라는것을하였으니 叢林規制는옷도따로 있지아니하고 밥먹는그릇鉢盂도 따로있지아니하여 假令새옷한벌이생기거나 새鉢盂한個가 생긴다면 그것을가장 上座의올리고 그사람의입었든옷이나 갖었든鉢盂은 그다음사람을 주어서 이러케次次로내리어 옷이헐고鉢盂없는사람에게까지 가게되는것이니 이러케圓融하고 和合하고 清淨한生活에 무슨財慾이있고利取를圖謀하여서 糧을빌고 돈을비는 卽現代所謂動鈴이라는것이 있었을理由가없는것이다.

그러나 動鈴이라는말은 반드시棟樑에서 轉變된것일것이니 大衆은많이있고 檀越의齋供이 或時間闕이있을때에는 不得不糧을비러다가 大衆의供具를작만하는수밖에 다른道理가없었을

것이니 그責任을맡은者를 近代에는食化主라고불녓지마는 羅麗時代에는 棟樑이라고불녓다. 李相國(奎報)集「王輪寺丈六金像靈驗收拾記」에

令夫都城之北 有事曰王輪 是海東宗恒轉法輪之大伽藍也 昆盧遮那丈六金像一軀 聞者有二比丘 曰巨貧, 皎光 同發願欲鑄成金像 作俗所謂棟樑者 其所謂棟樑者 凡浮屠之勤人布施營作佛事者之稱也

라하였으니 이것이곳勸善文을들너매고 施主를것는 冢現代의말로 寄附金이나自願金 또는喜捨金을 募集하는化主의役割이니곳漢文文字에沿門打化하는化緣道人이 그것이다. 佛像을鑄成하는것만이 佛事가아니라 佛教中事業을 무엇이든지 通稱하야佛事라하고 佛事에對하야 施主를얻는責任者는 糧食을얻거나 돈을얻거나通稱化主인데 只수에는 化主僧과動鈴僧의 行色과業務가 判異하지마는 古代에는兩者를通터러서 棟樑이라고하였을것이니 그때는 僧侶의 個人生活이 따로있었기때문에 只今처럼區區하게 自己個人의衣食을爲하고 囊索을爲하야 動鈴다닐僧侶는 없었을것이요 있었다면 大衆의供養을爲하고 大衆의精進을爲하야서나 그러치 아니하면 어떤佛事를經營함에서일것이니 그것을棟樑이라고아니부르지못하였을것이다. 여기對한傍證으로는 三國遺事「郁面婢念佛西昇」條에

棟樑八珍者 結徒有一千 分部爲二 一勞力 一精修

라하였으니 다시더明文은없으나 가만이文意를 생각하면 勞力하는一部가 冢棟樑의責任을갖었을것이요 勞力責任을갖인徒中이 領首이기때문에 棟樑八珍이라고하였을것이다(八珍은冢金剛山乾鳳寺에萬日會를創設하였든發微和尚이라)

그러나 近代에流行된動鈴僧 卽여기서由來를말하라고하는動鈴僧은 아마도李朝時代의產物일것이다. 그것은아조알기쉽게 僧侶가個人的獨立生活을 經營하는때부터일것이요 僧侶의獨立生活은 叢林制度의變動이생길때부터일것이니 李朝太宗때부터 朝鮮佛教에對하야 괴롭게 하기를 始作한것이 世宗六年에이르러서는 아조劃期的으로斷案을내리여서 七宗을주리어 禪教兩宗을 만들고 寺刹을量宜하야 禪宗에十八寺 教宗에十八寺 共計三十六만을 田結을주어서 居僧이數갯를定하고 冢外에 一設寺社는 田農을모조리押收하야버리었는데 三十六寺에도 田結이넉넉지아니하였으니 이제三十六寺를 낫낫이列舉할必要는없지만은 一二寺만을例로들지라도 禪宗興天寺나 教宗興德寺는모다 그宗에本山格을 갖인巨刹이지마는 겨우田二百五十結식을許諾하야 僧侶百二十人식이居住를 定員으로하고 冢外에는 이에準하야 田二結에 僧一人식을있게하였으니 三十六寺에對한 田結總計는七千九百五十結이요 僧數는 三千七百二十人으로 定額이되있었다. 그러나 그대로만두고 다시如何한增減이없었다면 冢만한田結을 가지고 冢만한僧數만은 動鈴을아니하드래도 精進修道할수가있었겠지마는 그後에도僧數는

限量없이增殖이되었으니 어째서이나하면 前에말한바와같이 正式으로는 居僧數를 定해준以外에 다시度牒을주지아니하였음으로 或은 그前부터 중이되었든者로도 定額에參例치못하여 度牒을갖이지못하였으며 或者는 새로 중이되려하나 度牒을얻을道理가없었는데 政府에서는 그다음乘常한政策을셋으니 宮闕을짓고 城廓을쌓고하는役事에는 반드시僧侶를赴役케하고 甚至於別瓦密, 活人署같은데도 僧侶로하여금應役케하면서 그런役事에一箇月만 勞役한者는 慶牒을주기로하여서 度牒있는僧侶는 赴役을하지않고 度牒없는僧侶가 度牒을타기爲하여 赴役을하게되었으니 實地上으로는 僧侶의赴役이아니오 雜流의赴役인同時에 赴役한功勞로度牒을얻은 僧侶도 亦是眞正한僧侶가아니오 可謂雜僧이었는데 其數는日増月加하여 一年에도萬餘名식이增殖되었고 그것을念慮하여 上疏한文字들을 實錄中에서도금성드못하게 보는 바이다. 그러면 그런僧侶들이 어떻게 生活을하였을가하면 政府에서 指定한 三十六寺에는 居住할수가없었다. 첫째繇役이나 免하기爲하여 一二月赴役으로 度牒을얻은 즉 僧侶行爲에익지못한것 둘째 三十六寺에는 僧侶의額數를定했으니 增員할수없는것 셋째設使內容으로가만이 增員을하라할지라도 田結이 不足하니 共存共活할수없은즉 그런僧侶들은그情勢가 不得不 三十六個寺以外의 寺刹에 居住할수밖에없고 三十六寺以外에는 田結이없은즉 그들의衣食은 不得不行乞의一路外에는 다른道理가없을것이니 이렇게推求하여서 우리들이 恒常目擊하는 賤賣風流의動鈴僧은 李朝世宗以後에防始되었을것시오 그것이僧侶界에 普遍化되어 僧侶가되는以上에는 아모라도動鈴하는것을 羞恥로알지않고 本業的으로알게되기는 燕山朝以後라고 생각하는것이니그理由는燕山朝가荒姚失政함으로 所謂三十六寺의 田結僧額도다廢止되고 三武一宗처럼 法令으로佛法沙汰는시키지아니하였으나 無意識中에沒規則으로沙汰가되어서 朝鮮佛教의命脈이 하마트면 斷絶될뻔한 危境을지낸以後로 三十六寺만도 마자止住할수가없게되니 그때의僧侶들은 오즉動鈴박게 依止가없었다 그리되야 寺刹의田結即公財가없어지고보니 圓融이라는은叢林規制가없어지고圓融이없어지니 個人生活을經營하게 되고 生活을 各自經營하자하니 動鈴이라도하여서 衣食을支持하는것이 當然한路程일것이다. 一言으로뒀어놓고 高壓的政治로極度の 排斥이 五百餘年繼續하는바람에 佛教의羞恥오 民族의屈辱인動鈴僧이 생긴것이다.

그러나 여기서混同으로보지못할두가지 條件이있으니 棟樑은元來 佛家에서施財를募集하는 化主僧의稱號이며 動鈴은民間에서 不具者나或은依止없는西窮들이 鈴을흔들고다니며 求乞하는者를指目하는말일것시오 또한가지는宗教의色彩로佛事나經營하기爲하여 하든棟樑이 時代의形便을따라 生活을營爲하는賤賣風流로 도라져서 木鐸이나 磬쇠를들고 因果目, 回心曲같은것을 노래부르게된以後로는 俗語를 그대로襲用하여 動鈴이라고 쓰게되는것이다.

(「朝光」 제2권 제3호(36.3), pp.124-127.)

줄 무 지

白 花 郎

—

어형— 어형—.

너너리 넘차 어형—.

어형— 어형—.

사람이 났다가 죽으면 그 어형소리로 깊은 청산(靑山)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죽은것을 시체(屍體)라하고 그 시체를 처치하는것을 장례(葬禮)라하는것은 새삼 스러히 말할필요가 없거니와 특히 이 장례를 지내는 풍속만은 각민족이 다르고 각나라가 다른것이 허다하다.

그럼으로 그장례의 종류로써 말할지라도 그수효가 허다하여 일우 헤일수 없을만큼 그득하다.

그중에서도 거이 공통성이 있는것을 대강 들어보면,

- . 매장……(埋葬)
- . 화장……(火葬)
- . 풍장……(風葬)
- . 조장……(鳥葬)
- . 야장……(野葬)
- . 증장……(蒸葬)
- . 수장……(水葬)
- . 수장……(樹葬)

이상과 같이 여덟종류를 들어 말할수있다.



무릇 매장이라는것은 우리가 다 아는바와 같이 시체를 땅에 묻는것이니 이매장은 특히

우리 동양에서 보통되는 장례의 법으로써 옛날옛적부터 내려오는 장례이니만큼 더 말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그다음에 화장이라는것은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장례하는것으로써 이장례법은 특히 불교를 숭봉하는 신도(信徒)가 행하는 법이었든바 요사이에 이르러서는 이화장법도 매장과 아울러만히 행하는 시대가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아즉도 화장을 거행하는 례가 적으니 기독교인이 화장을 피하는뜻은 장차 예수그리스도가 이세상에 다시 강림하는때에는 방금있는 물건은 물론이오 이미 생명을 잃은것이라도 다시 전날형상과 죽금도 다름이없이 살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 다시 살아나는날을 기다리기 위하여 매장을하는것이다.

그런데 이와반대로 불교를 믿는사람들은 반드시 화장을 주장하게되니 그뜻은 생전에 도(道)를 잘 닦으면 배속에 도의 결정(結晶)이라할수있는 소위사리(舍利)라는것이 있으므로 그사리를 끄내기위하여 전신을 불에 태우게된것이다.

죽 불교를 믿는사람으로써 감정이 생기어 서로 말다툼을할새

『어디보자! 네몸이 다탄뒤에 무엇이 나오나 보자!』

하는말을 하는수가 있으니 그무엇이 나오는가 보자하는것이 즉 사리를 가르쳐 말한것이오 그 사리가 있고없는것과 또는 많고 적은것으로써 그 사람이 생전에 신앙심이 장하였든가 혹은 것탈노만있었든가를 알게된다는것이다.

죽 불가에서 화장을 하는뜻은 오직 그시체를 처치하는 방법일뿐만아니라 말하자면 그사람의 평소 신앙심을 최후로 시험하고 최후로 청산하는 세음이라 할수있는것이다.



어쨌든 이상에 말한바 매장과 화장은 우리가 행용보는바 일이니만큼 그대지 고이하게 생각될것. 특히 화장에 있어서도 지금은 별다른 생각이없는 장례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이상스럽게 생각되는것은 매장과 화장이외의 여러 장례라고 할수있는것이다.

죽 저 풍장(風葬)이란것은 송장을 큰나무에 매달어서 바람에 시들게하는 장례.

조장(鳥葬)은 송장을 미리 돌노씨맨들어 놓은곳에다 얹어두고 가마귀, 까치는물론 특히 식인조(食人鳥)가 물어와서 쪼와 먹게하는것이니 이풍속은 인도(印度)에서 행하는것인바 그장려례의 뜻은 전생의 모든 악이 점점히 떨어져서 멀리 가라는뜻.

야장(野葬)이란것은 송장을 들에 버리는 장례.

수장(水葬)이란것은 송장을 물에 띄우는 장례.

수장(樹葬)이란것은 송장을 큰 나무가지 우에다 매달어두는 장례.

그중에서도 증장(蒸葬)이란것은 송장을 시루같은데에 찌내는 장례를 말할것이다.

이중에 송장을 물에 띄우는 풍속이 많은곳은 역시 인도(印度)인바 인도에서는 그민족들이 성수(聖水)로 위하고 일컫는 항하(恒河)에 흔히 수장을 많이 지낸다.

그리고 풍장(風葬), 야장(野葬), 수장(樹葬)은 중국의 두메서와 몽고(蒙古)등지에서 행하는 풍속이며 증장(蒸葬)은 섬라(暹羅)지방에서 행하는 풍속이었다.

이중에 우리조선에 행하던것으로 말하면 야장(野葬)과 수장(樹葬)이 있었으니 즉 홍역이나 마마를 하다가 죽은아이는 흔히 들에다 그대로 내버리는일이 있었는데 전날 수구문(水口門)밖 성밑에는 이러한 송장이 쌓여있던것이 즉 야장의 한절례라 할수있었다.

그리고 수장(樹葬)이란것도 역시 어린이 송장을 흔히 나무에 매달고 그것을 애총(兒塚)이라 하였으니 특히 어린이의 송장을 야장이나 수장을하는 뜻은 다시 살아날수가 있다는 미신에서 나온것이다.



우에 말한바와 같이 장례를 거행하는 풍속이 이와같이 형형색색으로 많은바 장례를 거행하는 의식(儀式)도 또한 다른것이 만하였다.

즉 상주(喪主)이하 여러 회장자(會葬者)가 반듯이 거마(車馬)를 타는 풍속이 있고 또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형세가 유력하다할지라도 반듯이 도보로써 걷는풍속도 있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어떠한 의식으로 거행하든지 장례에는 그상제되는 사람은 물론이요 회장자라도 누구를 물론하고 반듯이 슬픈것을나타내는것이 상가(喪家)의 례이었다.

그러나 이와반대로써 오호려 호탕스러운 동작으로써 장사의 의식을 채리는것이 있었으니 이것이 즉 줄무지라고 하는것이다.

원래 우리조선의 줄무지라는것은 화류계(花柳界)의 장사풍속이었다.

대저 옛날 우리조선의 기생이란 녀자는 정식으로 정해놓은 남편이없는 녀성이었다.

다시말하면 기생은 속으로는 어찌되었든지 겉으로는 일정한 남편을 두지못하게 된것이 한풍속이요, 또는 나라의 법이었으니 마치 내인(內人)이 내인 노릇을 하는때는 일정한 남편을 두지못하는것과 똑같았다.

그래서 흔히 기생서방이란것은 기기생의 일정한 남편이되는 남자가아니요 기기생을 거느리고 있는 포주(抱主)이었을 뿐이었다.



이와같이 기생은 임자가없는 가없는 녀성. 살아생전에도 임자가없는 녀성이어든 허물며 죽은 사후에나 더더구나 임자가있는 녀성이 될수있을가.

그럼으로 만일 기생이 죽는다하면 그 초상에는 상제가 없는것은 물론 주장이없는 송장

이오 또는 초상이 됨으로써 그불상한초상. 그불상한 송장을 파묻기위하여 비로서 그기생과 평소에 친히 지내든 외입쟁이들이 모와서 장사를 지내주게 되는것을

『줄무지!』

라하였으니 그뜻은 여러 사람이 함부로 모왔다는 의미이었다.

이 줄무지가 떠나는때는 여러 외입쟁이가 일제히 머리에는 두건을쓰고 발에는 룩날메투리를 신고 몸에는 소창옷자락을 뒤로 제체매는등 그치장을 매우식혼등하게 채리고 나선다.

이와같이 복색을 채린뒤에는 그의입쟁들이 요령을 혼드는 장두수번도되고 상두군도되고 또는 등통군도되는것이 정칙이다.

그런데 그중에도 특별한것은 줄무지 상려앞에는 의례히 삼연륙각을 잡히고 상여뒤로는 풍유를 잘하는 외입쟁이들이 거문고, 가야금, 양금, 단소등 풍유기구를 가지고 딸어선다.

이렇게 삼연륙각을 마차 행진을해가면서 산상에 이른뒤에는 그관을 땅에 뚫는법도 다른 장사와 다름이 없으나 오죽 다른것은 봉분을 다지은뒤에 제물을 가추어놓고 여러 외입쟁이가 그삼연륙각을 용하여 줄풍류를할새 그중에는 반드시 몸을일어 한량무(閑良舞)를추고 또는 그죽은 기생이 생전에 잘부르는 노래를 불러 최후를 기념하게하였다.



이와같이 줄무지는 먼저 화류계에서 부터시작이 된것으로써 그 풍속이 차차 변하여 필경은 의지가없는 불상한 송장을 치게될때에 한동리. 두동리 그동리의 인심대로 여러사람이 모와서 줄무지를 꾸미는 풍속이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 변한 줄무지는 첫째 줄무지군의 치장과 기구가 달렸으니 이런 줄무지에는 두건대신에 꼬깔을 쓰고 또는 삼연륙각 대신에 꿩가리, 증, 북, 장구등으로써 길군악을 요란이 치게된 것뿐이었다.

하여간 이줄무지라는것은 불상한 송장이나 가난한 송장의 일종 사회장(社會葬)의 의미로써 동정하여 지내주는것이 그 줄무지의 곱혼 정신이었으니 이러한 의미로 보아 줄무지는 실상 나쁜 풍속이라 할수없었다.

그러나 시세의 변천을 따라 그 나쁜지아니한 줄무지의 풍속도 이제와서는 없어진 풍속중으로 살아졌다.

(「朝光」 제3권 제1호(37.1), pp. 297-301.)



# 流行歌의 걸어온길

楊 薰

## 1

識者間에 「流行歌」라던 곧 大衆의 低俗한 趣味에 阿諛하는 煽情的 歌謠라고 흔히 생각 하고들었다. 從來流行歌란種目的 歌謠의 內容이 그러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流行歌란 低卑한 煽情的 軟調歌謠의 代名詞가아니다. 國民의 士氣를 鼓舞昂揚하는 愛國歌, 軍歌라도 流行歌라할수있다. 一般大衆이 너도나도다들 노래할수있는, 流行性を 띠운, 歌謠가 流行歌일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圓盤界에서 流行歌란 名稱을 驅逐하고 새로이 新歌曲, 新謠曲, 新歌謠, 歌曲愛唱歌等, 으로 부르는 歌謠이며, 放送局의 國民歌謠 國民合唱, 家庭歌謠들을 다 流行歌로 보아도 決코 不當치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 注目할것은, 우에말한 流行歌에 關한 識者의그릇된 解釋이 그들로하여금 所謂流行歌의 排擊에서 한걸음 더나아가 레코-드의 藝術的, 文化的. 價値乃至文化的, 使命을 否定케한다는것이다.

두말할것도없이 所謂流行歌는 레코-드의 產物이다. 그리고한때레코-드業者는 大衆의 嗜好에 迎合하는 卑俗한 軟調流行歌謠制作만으로 販賣成績을올린事實이있었다. 그러므로 레코-드라면 流行歌, 流行歌라하면곧레코-드를 聯想케한것도 無理가아니다. 그러나 流行歌가 레코-드文化的 全部가아님은 勿論이고 過去의 圓盤界의 一時的過誤를 가지고 레코-드의 藝術的文化的價値乃至使命으로 全面的을 否定한다는것은 레코-드가 本來가진 影響力教育性指導性等을 正當히認識못하기때문이다.

「音樂은 軍需品」이라하여 레코-드音樂의 效用이 強調되며 한편國民士氣昂揚에 皆唱運動이 力說되어 文化財로써의 레코-드의 힘이크로스업된 오늘날 戰時下의 레코-드의 文化的價値使命은 如何한가. 이것은 本論外이므로 後日機會로 미루고 此稿에선 우선 朝鮮流行歌가 어떻게 變遷해왔는지 一瞥코저한다.

## 2

流行歌謠는 時代相을 날카롭게 反映하는것이다. 레코-드 業者가 流行歌盤을하나 制作하면, 組織化한 販賣網을 通하여 巨大한 宣傳의힘으로 大衆의입에 流行되도록빈다. 流行歌

搖籃期에있어서는 口傳으로流行하고 있는 歌謠를 吹込하여 流行歌라고 市場에 내놓았지만 지금流行歌란 反對로 먼저 制作한후 流行시키는것이다.

하영던 流行歌의 對象이 絶對的으로 大衆에 있으므로 우리는 流行歌를 通하여 그時代의 時代相을엿볼수 있는 것이다.

朝鮮流行歌도 現在十五年이란 歷史를갖고있음으로, 各레코-드 會社를 合하여 數千種이 세상에나왔다. 그동안 이들多數의 流行歌의 功罪는 如何間에, 좋든지 나쁘든지, 하영던 一般大衆日常生活에 浸透해온것만은 嚴然한 事實이다.

어떤 歌謠가 大衆의 心理를 잘把握하였는가하는것을 發賣成績이 優秀한 所謂히트盤을 通하여엿보기로 하자. 流行歌의 한句節이 四五歲의 幼兒의입에까지 오르게되는 히트盤이 出現되기까지에는, 大衆의 口味에맞지않는 凡百의 流行歌가埋葬되어오고있다.

그럼, 먼저朝鮮流行歌의 起源을살펴본다면, 처음 레코-搖籃期엔 確然한 流行歌펜을 얻지못하였다.

蓄音機普及도 시원치못하였을뿐더러 처음 레코-드가 朝鮮에 들어와, 卽제비 票日東, 수리 票日蓄이 吹込한것이 거의舊歌謠요, 其外로, 獨唱唱歌, 童謠, 映畫解說이 좀있었을뿐이었다. 當時 「소리판」이라는데 驚異의눈을빛낸 一般의 期待가먼저, 傳統깊은 既存藝術吹込에 쓸렸을것은 當然한일이다. 其時, 尹心憲嬢의 「死의讚美」와같은 獨唱盤이 잘나갔다하지만 一部愛好人士에 膾炙고 舊歌謠販賣에 比하면 微淑한 數字이었다.

이와같이 獨唱, 唱歌, 童謠 등으로 流行歌의펜을 얻지못하다가비로소, 全鮮을 風葬하게된 것은 金剛키네마 第1回作品落花流水의 主題歌다.

勿論이것은 지금과같이 映畫와 提携하여 制作한것이아니라, 當時映畫件奏音樂이 盛況했을때 「스크린」에 字幕이나오면 或시 映畫에 歌詞插入이없드래도말의 帛스에선 管絃樂件奏로 그映畫의 主題歌를 불렀던것이다. 長恨夢, 籠中鳥, かねすき카주-샤, 아리랑, 風雲兒, 昏街暗路세동무 等- 다이런形式에서나온 主題歌다.

昭和二年落花流水가團成社에 上映되자 이主題歌가 大流行되어 그후 昭和四年에 콜럼비아에서, 그리고곧 뒤파라빅타-에서 이落花流水(江南달)을 發賣했는데 燎原의 불과같이 全鮮各地-大流行을보게된것이다.

지금세대들어슨 青年에겐지낸날 少年시절에愛唱하던 그리운노래 푸른하늘銀河水하얀 쪽배에의「반달」과함께 이落花流水-

『江南달이 밝아서 님의놀든곳 구름속에 그의 얼굴가리워 졌네 勿忘草핀언덕에 외로히서서 물에뜬이한밤을 홀로새워요』의 자장가가 되었을것이다.

이와같이 朝鮮流行歌는 映畫小曲映畫主題歌로부터 起源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레코-드의 合理的販賣網이 完備되었고, 電氣吹込으로 레코-드의 商品價値가더욱오르기 始作한때라 하겠다.

當時歌手로말하면, 金蓮實, 姜石燕, 李愛利秀, 金鮮英, 金仙草等 映畫, 演劇俳優가 大部分

이며, 管絃樂伴奏은 大概, 朝鮮唱劇이나 團成社管絃樂이었다는것도 興味있는일이다.

이「落花流水」뒤미처 流行된게 姜石燕의 「오동나무」李愛利秀의 「메리의노래」이다.

『落花流水』『아리랑』에서 流行歌편을 얻은 레코드 業者가 이때부터 비로소 먼저 制作한 歌曲을 活潑한宣傳에 依하여 流行케한것이 特徵이다. 「荒城옛터에 밤이되니 月色만 고요해」의 「荒城의跡」이 流行한것도 이때 昭和七年頃이다.

昭和七年十月 포리도-르의 朝鮮譜第一回發賣로 李景雪의 『世紀末의 노래』가 發賣되자, 當時「술은눈물인가 한숨인가」를 迎合한 大衆은 이題目 그대루世紀末의 頹廢的歌謠를 歡迎했다. 「거미줄로 한허리를 얹어 거문고에 오르니 일만서름 푸른궁창아래 굶은비만나린다 시들퍼라 거문고야 내사랑거문고 까다라운 이거리가 언제나 밝어지려하는고」

旋律은 못듣드래도 歌詞만 보아 얼마나 壓世의이구 頹廢的不健全한 노래인지넉넉히 짐작할수있을것이다.

다음해 昭和八年 오-케가 第一回로 尹白円의 「長恨夢」을 내놓자, 圓盤界即콜럼비아, 빅타-, 포리도-르, 오-케, 시에론社의 流行歌亂射亂鬪期에들어섰다. 歌手爭奪戰이 始作된 것도이때부터이다. 이와같이 各社競爭이 白熱化한 結果流行歌企劃의 貧困을 招來하고말았다. 이打開路로 新民謠가생겼는데, 처음 成功한것은 昭和九年末發賣姜弘植의 有明한 「處女總角」이다.

「봄은 왔네 봄이와  
숫처녀의 가슴에도  
나물켄어 간다고  
아장아장 들로 가네  
산들 산들 부는바람  
아리랑 타령이 절로난다 흥」

一時우리는 이 구수한 牧歌의 멜로디-를 全鮮坊坊曲曲에서 들을수있었다.

### 3

그後 鮮于一扇의 「꽃을잡고」 「朝鮮八景」 미스코리아의 「金剛山이 좋을시고」 좀뒤늦어 李花子 오-케入社 第一回作品「꿀망태牧童」 등의 新民謠가 大好評을 받아왔다.

「꿀망태 둘러매고 소틀모는 저牧童 곱비를 툇툇채며 콧노래를 부르다가 이라길길 어서 가자 情든넘기다릴냐」

이와같은 素朴한 牧歌的인 新民謠가 歡迎을 받아오다가 昭和十一年頃부터 攄스音樂의

影響으로 朝鮮流行歌는 一大變貌를 보게되었다. 流行歌가 제스音樂을 輸入攝取한 結果, 제스音樂의 明日의 希望을 잃고 발악하는거와 같은 히스테리한 不協和音과 시끄러운 「리듬」을 그만두드래도, 煽情的, 刺戟的, 瞬間享樂主義의 淺薄한 歌詞의 影響으로, 流行歌는 더욱 低落하고말았다. 이 때문에 歌謠題目은 無意味하드래도 刺戟的이었었고 歌詞의 野卑함은 勿論이며 에로틱한 唱法을 가진歌手가 出世를 하였다.

이時代의 圓盤界는 識者의 蔑視를 받아도 異議가없을것이다. 레코-드의 文化的藝術的 使命은 忘却하고, 營利追求第一主義로 大衆의 賤卑한 趣味에 阿諛한 圓盤界는 「加味夫婦湯」「情든님 上書」「알뜰한당신」「總角陳情書」等題目만봐도 眉間을 찡그릴 作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다음 끝으로 最近 四五年間流行歌傾向을 보건대, 日本포리도-르 調라말하고 「道中物」의 멜로디-가 大流行하였다.

最近數年間太平의 히트盤이 全部다 「道中物」라고 하여도 過言이아니다 「流浪劇團」「一字一淚」「社鶉花사랑」다여기 屬한다.

從來의 各社 레코-드를 쪽들어보건대歌謠의 테-마가모다 港口, 埠頭, 마도로쓰, 馬車, 如娘, 따위로, 우리日常實生活에서 距離가 먼것뿐이라는것을알수가있다.

#### 4

戰時下오늘날 레코-드歌謠, 流行歌로 一八〇度の 一大轉換을 하지않으면안된다.

流行歌도 臨戰態勢下的 國民娛樂으로서의 音樂, 換言하면 戰時下에 國民의 士氣를 昂揚하고 一日勞衝後慰安을주는 音樂이 되어야한다. 誤解를 避하기爲하여 다시 말하지만 여기 流行歌란 너도나도 다들부를수있는 健全明朗한 歌謠를 말한다. 두말할것없이 우리는 過去의 軟調流行歌를 排擊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한편 健全娛樂이란 이름아래 簇出할 時局 便乘의 歌謠도 再檢討하지않으면 안된다. 勿論眞正한 時局歌謠는 絶對로必要하다. 그러나 時局만 떠들어논 無味乾燥한 歌謠는 大衆의 反應이없다.

大衆의 反應이없다면 國策宣傳도안되려니와 貴重한 材料의 浪費에지나지않다. 차라리 標語로박힌 포스터-가效果的이고 經濟的일것이다.

또한 表面 歌詞는 時局的이나 曲調는 제스橫行時代의것이라면, 이것 亦是絶對로 排擊하여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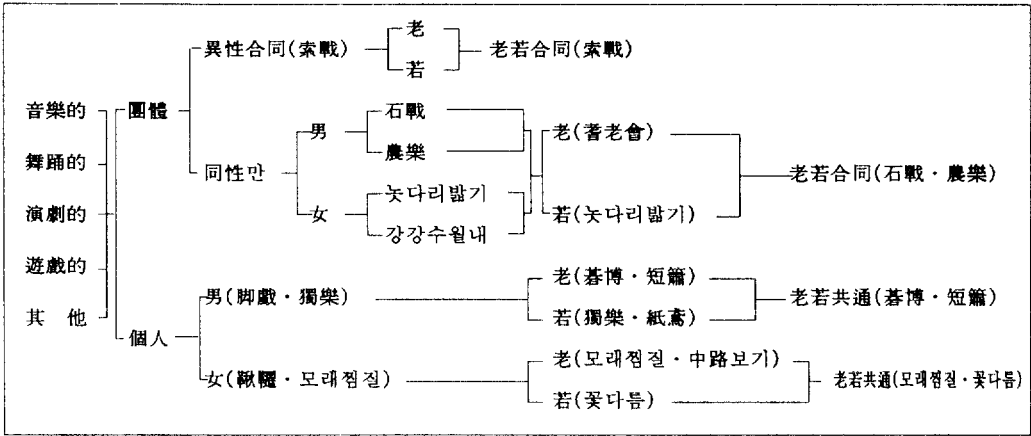
듣건대, 各社は 昨年十二月에 自肅하여 過去軟調의 流行歌를 廢盤或은 製造中止處分을 하였다 한다. 그리고 今後의 製作도, 眞正한 健全明朗娛樂物을 目標로 新吹込企劃中이라니, 그 成果가 期待된다.

(「朝光」 제8권 제7호(42.7), pp. 124-127.)

# 朝鮮傳承娛樂의分類

宋 錫 夏

## 가. 機構上分類



이草稿는 朝鮮의 娛樂을 如何히 할가 또는 朝鮮의 娛樂 特히 農村漁浦의 그것을 어찌하였으면 좀더 나홀가 또는 이것은 第一 좋으니 이것은 獎勵하자 或 이것은 나쁜것이니 이것은 中止하자하는 한 提案도아니다. 그러하므로 健全明朗한 娛樂이 一般國民에 끼치는 큰 影響이라든지 또는 不健全한 娛樂이 끼치는 他面의 影響같은것은 새삼스리 말도않니하려니와 그런것은 말할必要조차 없다고 믿는바이다. 다만 이 拙稿에 쓸려하는것은 大略 日前 座談會에서 말한것도 있거니와 朝鮮서 在來傳承해온것中에 어떠한 것이있으며 또는 그것을 簡略하게 概念만을 알나는 人士에게 參考로 적어볼까 하는것이다. 또 事實 내가 重言 復言없이 하드라도 識者는이미 斟酌할것이라고 믿는바이다.

## 나. 季節的分類(年中行事)

正月

擲柶, 跳板(널뛰기), 索戰, 石戰, 紙鳶, 假面劇, 地神밟기, 木牛戲, 迎月, 踏橋, נות다리밟기, 車戰, 野火戲, 炬火戰, 獅子舞, 官員노리, 從卿圖, 城隍祭, 別神굿, 강강수월내.

二月

머슴노리, 燃燈祭

三月

花煎노리, 敬老會, ※節遊, ※鄉飲酒禮, 弓術會, 極樂마지(開城)

四月

과일노리(倡調劇, 影繪, 觀燈노리)

五月

端午노리(鞞韃, 脚戲, 假面劇, 假面舞踊, 獅子놀이, 偶人劇)城隍祭農樂.

六月

流頭노리, 三伏노리, 川獵, 除草農樂.

七月

百種노리, 머슴草宴, 두레노름.

八月

秋七노리(脚戲, 索戰, 假面劇, 人形劇, 倡調劇 ※白日場, 龜戲, 照里戲, 소맥이, 中路보기  
강강수월내.

九月

丹楓노리, 菊酒宴, 菊餅宴.

十月

農功舞踊

十一月

팽이(獨樂)

十二月

獨樂, 紙鳶, 從卿圖.

【備考】名稱上の ※印은 現在에는 하지않는것 又は 文獻에만있고 그全材가 不分明한것.  
獅子舞가 正月과 五月에있는것은 前者는南鮮, 北鮮것이고 後者는 海西地方의것이다. 倡  
調劇이라함은 普通唱劇, 倡調劇이라고하는 廣大소리及춤으로 秋夕노리에둔것은 便宜上  
이며 과일노리에둔까닭은 南原에 春香祭가 前에는 端午에하든것을 年前에 四月八일에  
긋친까닭에 그러한것이며 八日노리, 端午노리, 秋夕노리는 內容을 概括的으로 括弧內에  
各稱을舉하였으나 正月노리는 그러하지않이하였으며 九月의各種노리는 筆者亦역지로 쓴  
感이많고 獨樂은 少年의것이다. 各月은 陰曆임은 勿論이다.

## 다. 觀念的分類

### 情緒感情上

假面劇, 假面舞踊, 地神밧기舞踊(一名칭칭이又패지나칭칭)偶人劇, 獅子舞, 강강수월내, 農舞(移秧, 除草農功), 豐漁舞, 花煎, 草遊, 影繪劇.

### 勝負感情上

擲柶, 索戰, 石戰, 紙鳶, 車戰, 弓術, 獨樂, 骨牌, 鬪箋, 돈치기, 碁將碁, 鬪牛, 곰개.

### 宗教信仰上

假面舞踊, 假面劇, 地神밧기, 索戰, 石戰, 木牛戰, 迎月, 踏橋, 野火戰, 炬火, 燃燈祭, 極樂마지, 敬老會, 城隍祭, 官員노리.

### 亨樂上

머슴노리, 農樂, 祝福노리, 百種노리, 丹楓노리, 菊酒宴, 菊餅宴, 船遊, 川獵, 三伏노리, 流頭노리.

### 體育競技上

索戰, 石戰, 車戰, 脚戲, 鞦韆, 跳板, 杖球(얼내공又짱공은 現在의 학기에類似) 水上杖球(現在의 아이스하키같은것), 踏橋, 넛다리밧기, 弓術, 橋火戰, 地神밧기, 紙鳶, 택견, 十八計(此二者共近世支那輸入技)

【備考】假面劇, 假面舞踊을 「情緒感情上」「宗教信仰上」의 두 項目에 든것은 그演劇과舞踊이本來에宗教的儀式에서 나온것일뿐 아니라 現在에는그러한 痕迹이있는가답이며 獅子舞, 豐漁舞, 官員노리도勿論할것이나 너무 複雜만하기로 省略했다. 石戰及索戰을 「勝負感情上」「宗教信仰上」「體育競技上」의三項에編入한가답은 이는 그自體가 勝負의興味를끄는데다가 發生動機及結果가 宗教的이며 그行爲가 體育競技的인 所由이다. 擊毬等은 實際로못본것이므로 割愛한다.

## 라. 地理的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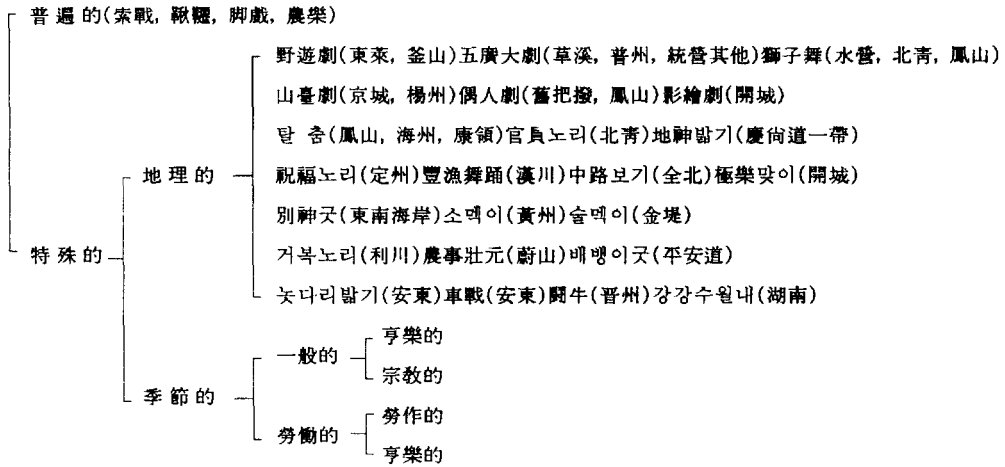
### 南鮮地方

秋夕노리, 假面劇, 獅子舞, 地神밧기, 넛다리밧기, 車戰, 머슴날노리, 花煎노리, 강강수월내, 農樂, 모래찜질, 索戰, 脚戲, 鞦韆, 跳板.

### 中鮮地方

파일노리, 端午노리, 鞦韆, 索戰, 石戰, 脚戲, 極樂맞이, 假面劇, 跳板.

## 마. 存在上分類



### 西北鮮地方

端午노리, 假面劇及舞蹈, 獅子舞, 官員노리, 鞦韆, 脚戲, 跳板.

【備考】各地方緒頭처음에 秋夕노리, 과일노리, 端午노리라함은 南, 中, 北部的代表的明節을 表示한것인데 時代의 觀念變遷으로 中鮮地方도 端午로 고쳐야 맛당할지 모른다. 이 標로써보면 脚戲, 跳板, 鞦韆이 全朝鮮의임을알겠다.

【備考】索戰은 西北朝鮮에서는 現在보이지않이나 中, 南部朝鮮에 있으므로 普遍的部에 넣고 地神밧기는 忠清道一部에 있으나 慶尙道가 主이므로 特殊的部에 넣었다. 五廣大劇에 草溪라함은 그發祥地인關係이며 山臺에 京城을 넣은 것은 都監페山臺를말함이요 楊州는 別山臺發祥地인 所由이다. 거북노리는 長湖院附近임으로 그리하였고 農事壯元의 蔚山도 大略이러한 理由이며 大體로 다른것도 이에準한다.

(「朝光」 제7권 제4호(41.4), pp. 179-182.)



## 高麗에來往한西域사람들

閔 泳 珪

高麗史를 읽으면, 大食人, 西域人, 回回人, 河西人, 또는 回鶻人等に 關한 記載를 處處에서 發見한다. 이들의 異國人이 同書에 보이는 다른異國人들—契丹人, 女真人, 蒙古人, 南蠻人, 暹羅人, 또는 日本人과는 달리, 所謂色目人 즉 西域人의 系統에 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네들은 一時的用務를 띠우고서 다녀간 사람들도 있으나, 이땅에 길히 옮겨와서 당시의 서울, 그러지않으면 시골에, 居處를 잡고 있었을것이니, 生來의 特異한 모습이나 風習이 보는이의 好奇를 끌었을것은 勿論이려니와, 또한 그네들의 獨特한 生活設計며 技藝等이 期하지않코서 그후의 조선文化—특히 歌舞演藝에 貢獻한바 많았으리라고 推測되는바이다. 紙幅이 制限된 여기서는 뜻과같이 밝혀볼길도 없는일이려니와, 大概 그네들이 어떠한사람들이었으리라는것만을 簡單히 紹介해보기로한다.

筆者는 이들의 西域人들을 그들이 來國한 經路에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 系統—陸路系와 海路系로 匹別한다. 西域諸國과 中國과의 交通은 멀리 秦漢적에 始作한다고하나, 兩者의 關係가 實로 咫尺의 사이에 놓여진것은 北魏의 河西經略으로부터이다. 唐代에 벌써 西域人들이 無數하게 來往하든 都市로 只今の朝陽(營州)이 그중에하나였고, 唐末에 이르러서 시라르렌河畔에掘起한 契丹族이 天山으로 西征하매, 利州 沙州等地的 西域사람들이 滿洲等地로 活動舞臺를 넓히는것도 쉬운일이었을것이니, 高麗에 來往하든 西域人이라면 應當이러한 東西交通의 延長에서 이루어졌었을것이다. 元代西域人이란 從來의 그것과는 政治的背景이 좀다른것이있어서, 色目人이란 階級을 特設하여 漢人의우에두고 蒙古人이直接漢人을 統治하는代身に 文化的으로 優越한 西域人들을 利用하였든것이니, 高麗史에 나온西域人의 一半은 亦是이러한 色目人政策이 麗元關係에까지延長이되었든消息을말하는 것이다. 우에말한것이 大概陸路를거친 西域人들이다.

宋史大食傳을보면, 從來엔陸路로 沙州를거쳐서 人貢하였는데, 天聖元年(一〇二三)부터선 南海路를타서 來貢하게되었다는記錄이있는데, 其實, 亞刺比亞사람들이 東西海上貿易을 獨占하고, 廣東 泉州 揚州 等に 活潑한, 貿易行爲을 經營하기는 멀리八世紀頃의 唐代로부터 始作되어있었던것이다. 唐代의廣東이나, 宋代의泉州가 당시世界에第一가는貿易港을 이루었다하니, 이웃인高麗國만이 호홉로이러한 海上貿易에서孤獨을 지켜왔을理가없다. 顯宗十五年(一〇二四)九月條에 大食國 悅羅慈等 一百人이方物을 來獻했다는記錄. 靖宗六年(一〇四〇)十一月條에 大食國客商保那蓋等이水銀, 龍齒, 占城香, 沼藥, 大蘇木等珍物을 進貢했다는 記錄等이 그것이다. 進貢한方物이 大概 南方土産인것, 顯宗十四年十一月에 宋泉州人(陳

億)이 來投했다는 記錄等等은 上記大食國客商이 海路를通해서 來國했으리라는것을 斟酌케 한다. 靖宗三年四月에 西蕃酋長沙蘆 등이 來朝했다는 記錄에서보는西蕃酋長이란 必是南海方面에서 온異國인이었을것이다. 이것이 大概南海를 通해서온 西域人들이다. 海路를것쳐은 西域人들이 大概通商을 目的하고 來朝하였든反面에, 北方陸路系에선, 勿論一時的用務로 來往한者도있으나 或은元室의 餘勢를빌린所謂 色目人이거나 또는 微賊한商人, 地方으로曲藝를 팔러다니는 流浪人으로써 來往한西域人들이 제법 많았을줄아니, 筆者가 特히 興味를느끼는점도 이後者에關해서므로 다시이것을들어서 紹介해보고자한다.

高麗史卷一百十二엔契氏의列傳이있는데, 그는본대 漢北세벥가河(契鞏河)에 蟠居하다가 內亂이나서 西徙하여 天山南麓高昌地方에 定住했든 回鶻人의子孫이다. 回鶻族이漢北에서 나라를이루고 있을때부터 契氏는代代國相의名門이었다하나, 契遜의 高祖때에이르러서 元室에 仕朝한以後로도亦是名族의地位를 保持했든것은 錢大昨元史氏族表에실린 契氏一門의 九進士登利圖로도 斟酌되는바이다. 契遜이麗朝에 歸屬한것은 元室의威勢가 漸退해가든恭愍王七年인데, 여기서도亦是그의一族만은 代代重用을입었던것이다.

여기서 暫間留意해야할것은 高昌契氏가 어떠한 民族文化의所特者였든가에 對한疑問일것이다. 中國陳垣氏는 일직히 「元西域人華化考」란長篇論文에서 特히契氏一門을 詳論하였스되, 漢北時代부터 烈烈한摩尼教徒였든것을 高調하였다. 陳氏의所信처럼 高昌契氏가 일직히 烈烈한摩尼教徒였든것은 事實이려니와, 내내그들이 民族宗教를 끝까지固持해왔었다면 契遜一族의高麗來住엘 좀더生彩가나고 우리네들에게 반가운일꺼리를 작만해주는것이 될터인데, 京都羽田協士의 所謂인즉 西曆十四世紀때 이미高昌回鶻族은 改宗하고 摩尼教徒가 아니였었다고한다. 뿐만아니고, 元朝에臣事한回鶻人中에도 契氏一族은 中國化한小數人物의 代表的存在하였든것이니 所詮이것을 文化史的으로볼때, 完全히 去勢된 西域人의來朝에 不過하므로 거이魅力을 느끼지못한다기보다 失望을느끼는 것이 많다. 元代西域人들중에 文章으로 이름을 낸 이도 많은대 麗史에 나타난 契遜父子도 그예에빠지지않아서, 그들의 詩文으로 東文選에 많이남겨있는것이있고 契遜에겐 따로 「近思齊逸藁」란 文集이 傳한다는데, 이것은 상키接目할 機會를 얻지못했다.

高麗史卷一百二十三에 三人의 怯怛口列傳이 실려있는데, 그중에 張舜龍(本名三哥, 回回人)과 盧英(本名式篤兒, 河西人) 두사람은西域人이다. 이들은 元世祖의 딸 齊國公主의 怯怛口(私屬人)로 來往한사람들인데, 忠烈王이라는이가 본대元室의 走狗노릇하는일밖에는 能이없든분이니, 가뜰에이러한怯怛口들의 狂縱이란 想像키어려운일이아니다. 盧英은쉬죽고, 張舜英은 兄弟一族이모다來朝하여 永住하였든상싶다. 麗史의 選者는 이러한 異域人들에게 好意를 갖지않았든것도 맛당한일이려니와, 이들怯怛들이 서로다투워가며 그네들의邸宅을 裝飾하되 꽃으로 花壇을모으고, 울타리를 花草로 繡놓았다는 記錄은 特히 興味를느끼는點이다. 여기서 想起되는 것은 麗史樂志에실린 三藏寺노래와 함께 짝지워서傳해온 雙花店노리이니, 勿論그것은 당시 서울에 來往하든 西域人을 노래한것이다.

雙花店에 雙花사러가고 신덴,  
 回回아비 내손목을 쥐여이다,  
 아말삼이 이店밖에 나명들명,  
 조고막한 시끼廣大네말이라 호리라.  
 (下略)

回回人, 即이를西域인들이 特히 꽃과인연을갖게된것은 아마정녕 그네들의 故土에서 부터가아니든가. 일직이 英國스타인卿이 天山南路沿線으로 沙漠가운대點綴된 古代住居遺址를 거둬 探查한 諸報告書를보면, 沙漠의自然景觀에서 經營되었던 당시住民들의 生活이彷彿하여지는것이있거니와, 그중에도 特히 「니아」(尼壤城—大唐西域記) 住居址같은것은 거이完全에 가까운 復原圖를 보여주는點 놀랄만한것이었다. 조고막한 집한채, 그周圍로設計된 넓지않은 果樹園, 그가운데로引水하든좁은水道, 水道뚝으로 단정하게 심겨진 포푸라나무들… 沙漠의 暴威와싸호가며, 적은풀, 적은나무하나하나를애끼고 사랑하는 心事가이렇게 如實하게 나타날수가없다. 이것이 어느듯이 그네들에게 草木을 사랑하고 花壇을 모으는 재조를 翫得케하여, 高麗의서울에까지 그러한 風習을가지고온것이 아니든가하는것이다. 雙花店이란 必是꽃을파는가게였을 것이다.

雙花店歌謠에서 잊어서는 아니될點은 回回인들이 廣大란이름과함께불려져 있는것이다. 이것은 只今 우리가廣大일컫는것이 애초에 西域人의技藝人들을 불는대서始作한것이 아닌 가하는한證左를주는것인줄안다. 高麗史(卷百二十四) 全甫列傳에, 朴仁平이宰相에게말하는 言談中에 「廣大」로비유한 이야기가나오는대, 選者의注인즉國語론 假面노리하는者를 廣大라한다하였으니, 이것은 「廣大」가 본대 무었을 職業으로 하고 있었든가를 가르켜주는말이다. 卷一百二十二列傳白喜淵條에 「善淵等勸王(毅宗) 遊幸於江(禮成江) 江人歛民白金三百斤, 爲奇技涇巧. 王欲觀水戲. 命內侍朴懷俊等, 以五十餘舟. 皆搢彩帆. 載樂伎綵棚. 乃漁獵之具. 張戲於前, 有一人作鬼戲. 舍火吐之. 誤焚一船云云」이란記載에보는 雜伎의類엔 西域色彩가 甚히濃厚한것이었다. 西域人을 부른노래가高麗의서울사람들에게불리워지고, 不用意하게 비유한言辭中에 廣大한말이나올만큼, 그네들에게關한 知識이 常識心한것만을보드라도, 당시高麗에來住하던 西域사람들이 얼마나 낮은사람들이었든가를 말하는것이아닐가한다. 限定된紙數가 훨씬넘었으므로 이만적는다. 短促해서쓴 글이라 미쳐생각치못한대遺漏가 적지않을줄안다.

(「朝光」 제8권 제7호(42.7), pp. 64~67.)